

안치홍 “2년차 징크스는 없다”



**침묵의 KIA 타선 이끌고 침착한 수비 활약 ‘만점’
선구안 수싸움 키워 삼진 줄이고 볼넷 고르기 주력**

덩달아 손목에까지 무리가 가면서 올 시즌 전지훈련 도중 통증을 호소해 코칭스태프의 가슴을 찡찡하게 했다. 훈련을 중단하고 정밀 검진까지 받았던 안치홍은 안타수(6개)보다 더 많은 삼진(7개)을 기록하며 1할대의 타율로 시범경기를 마감해 2010시즌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조범현 감독도 무릎 부상으로 정상적으로 훈련을

소화하지 못했던 김상현과 손목 통증으로 고전한 안치홍이 전력의 변수가 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겁없는 신에 안치홍은 시범경기에서 숨을 고르더라도 한 듯 정규시즌이 시작되자 빠른 속도로 타석을 점령했다. 빼격거리던 타선에서 6번을 맡아 팽타를 휘두르며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
 그러나 2년차 안치홍이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손바

닥 상태가 완전히 않은 만큼 꾸준히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올 시즌 안치홍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다.
 삼진 줄이기도 안치홍의 숙제. 지난해 103개의 삼진을 기록했던 안치홍은 시즌 전 볼넷과 삼진을 가지고 50-50 목표를 세웠다. 삼진을 줄이고 볼넷수를 늘리겠다는 생각이다. 그만큼 선구안과 수싸움을 더 신경을 쓰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시즌 어린이재단과 결연을 갖고 안타와 도루당 1만원을 적립했던 안치홍은 올 시즌에도 야구를 통한 이웃사랑에 나선다. 지난해 결연 이후 극심한 부진으로 많은 금액을 적립하지 못했던 안치홍은 올 시즌 더 큰 사랑을 실천하겠다는 각오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년차 징크스는 없다.
 KIA 타이거즈의 ‘아기 호랑이’ 안치홍이 무서운 성장세로 팀 타선의 중심에 섰다.
 지난해 팀타율 꼴찌를 기록했던 KIA는 올 시즌에도 초반 타선의 힘이 좋지 않았다. 결정적인 순간의 집중력 부재로 힘겨운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KIA에서 안치홍의 활약은 단연 돋보인다.
 지난 3·4일 롯데와의 홈경기에서 이를 연속 3개의 안타를 쏟아내며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안치홍은 이후 10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하며 KIA 타선에 힘을 보태고 있다. 14일 현재 득점도 10점을 기록하며 만점 활약을 하고 있다.
 지난 9일 삼성과의 12회 연장전에서 아쉬운 끝내기 실책을 남기기는 했지만 2년차 선수답지 않은 침착한 수비로 내야의 든든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알토란’같은 타자로 초반 패조의 스타트를 끊은 안치홍은 사실 조범현 감독의 전력 구상에서는 불운표를 던져줬던 선수였다.
 고등학교 시절 왼 손바닥 뼈조각 제거 수술을 받았던 안치홍은 그 후유증으로 손바닥 통증을 안고 있다.



안방마님 김상훈 ‘극과 극’ 체험

안방마님 김상훈의 ‘극과 극’ 기록이 덕아웃에 화제가 됐다.
 두산과의 시즌 4차전이 열린 15일 무등경기장 야구장. 덕아웃에서 배트를 챙기고 있던 김상훈을 보고 한 취재진이 ‘타점왕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다.
 김상훈은 “그런 욕심은 없

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덕아웃에는 이내 알짜 타점을 놓고 이런저런 얘기가 오가기 시작했다.
 팀의 안방마님이자 주장인 김상훈은 15일 경기전까지 13타점을 쓸어담으며 팀내 타점 1위를 달리고 있다. 홍성흔·가르시아·이대호 등 롯데 방방이 부대의 뒤를 이어 전체 5위의 기록. 결정적인 순간의 일격으로 ‘타점머신’이라는 애칭까지 얻었다.
 한참 타점 얘기가 오가던 덕아웃이 순간 술렁였다. 팀 타점 1위를 달리고 있는 김상훈이지만 정작 득점은 ‘0’이라는 사실 때문이었다.

**타점 13점- 찬스에 강해 ‘타점 머신’
득점 0 점- 후속 발발 홈 한번 못 밟아**

김상훈은 “매일 홈플레이트를 지키고 있지만 정작 타자로 나가서 홈플레이트를 밟아본 적이 없다”면서 “1사에서 걸어나가도 홈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 말해 덕아웃에 웃음을 선사했다.
 최희섭은 “그러기 쉽지 않은데 신기한 일이다”고 놀란 표정을 지어 다시 한 번 덕아웃에 웃음이 터졌다. 덕아웃에 큰 웃음을 준 김상훈의 ‘극과 극’의 기록. 김상훈의 뒤를 지켜왔던 이현근과 이용규의 부진을 반증하는 아쉬운 기록이기도 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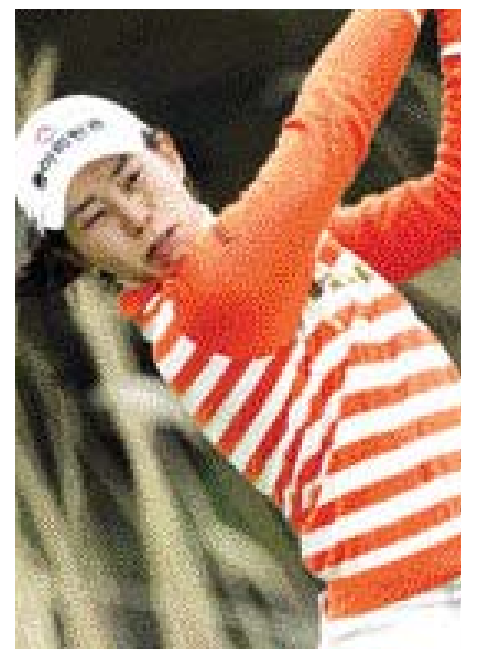


피겨퀸 김연아 아이스쇼

**오늘부터 사흘간... 체조 경기장
핀란드 요정 코르피 등과 함께**

‘피겨퀸’ 김연아(20·고려대)가 세계적인 피겨 스타들과 함께 국내 팬들 앞에서 아이스쇼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김연아는 오는 16일부터 사흘 동안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제1체육관(체조경기장) 특별 아이스링크에서 ‘KCC 스웨덴 페스타 온 아이스 2010’ 공연을 펼친다. 김연아의 국내 아이스쇼는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 만이다.
 이번 아이스쇼는 김연아가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차지하고 연이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고 나서 치러지는 ‘뒤풀이’ 성격이 강한 만큼 팬들의 관심도 대단하다.
 김연아와 함께 아이스쇼에 나서는 선수로는 ‘핀란드 요정’ 키아라 코르피와 동계올림픽 피겨 남자 싱글 5위에 오른 패트릭 쉐(캐나다), 2007년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인 브리앙 주베르(프랑스)를 비롯해 토마시

베르네트(체코), 일리아 클릭(러시아), 쉐린본(캐나다) 등이 눈에 띈다.
 또 페어의 장단-장하오(중국)와 동계올림픽 아이스댄싱 육사나 돌리나-막심 사발린(러시아)도 눈여겨볼 출연자다.
 김연아는 올해 첫 국내 아이스쇼에서 동계올림픽을 통해 역대 최고점(78.50점)을 기록했던 지난해 쇼트 프로그램 ‘007 제임스 본드 메들리’와 갈라쇼 프로그램 ‘메디테이션’을 선보인다.
 또 ‘제임스 본드 메들리’ 연극에서 김연아와 함께 또 다른 본드걸들이 무대에 등장해 팬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아이스쇼의 총감독은 김연아의 코치로서 최근 명예 시민이 된 브라이언 오서가 맡고, 안무는 데이비드 윌슨이 맡았다. 지난 9일 입국해 아이스쇼 준비에 정성을 쏟은 오서 코치는 윌슨과 함께 참가 선수들과 마무리 안무 훈련을 치렀다.
 ‘KCC 스웨덴 페스타 온 아이스 2010’은 16일 오후 8시 첫 공연을 시작으로 17일(오후 5시)과 18일(오후 5시30분) 세 차례 공연이 펼쳐진다.
 /연합뉴스



이현주 단독선두

롯데마트 오픈 2R... 유소연 컷 탈락

‘울산 아가씨’ 이현주(22·동아회원권)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롯데마트 여자 오픈 J골프 시리즈 2라운드에서 이틀째 단독 선두를 지키며 우승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현주는 15일 제주 롯데스카이힐 골프장(파72·6천254야드)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버디 5개에 보기 3개를 묶어 2언더파 70타를 쳤다.
 이를 동안 6언더파 138타를 적어낸 이현주는 지난해 힐스테이트 서울경제오픈에서 우승한 이후 생애 두번째 우승을 노린다.
 지난해 상금왕이던 2년 연속 이 대회 우승을 노리는 서희경(24·하이트)은 3타를 줄이며 중간합계 5언더파 139타로 공동 2위에 자리했다.
 첫날은 선두에 2타차 2위였던 서희경은 이 글 1개, 버디 3개에 보기 2개를 곁들이며 1타 차로 따라 붙었다.
 또한 프로 2년차 양수진(19·비스)과 신인 허윤경(20·하이마트)도 5언더파 139타로 공동 2위에 올라 우승 경쟁에 뛰어들었다. 김혜운(21·비싸카드) 등이 공동 5위(3언더파 141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멤버 유선영(24)과 이일희(22)가 공동 8위(2언더파 142타)에 올라 우승 가능성을 남겨 놓았다.
 한편 작년 12월 열린 시즌 개막전에서 우승한 유소연(20·하이마트)은 11오버파 155타를 치는 바람에 컷 탈락했다.
 /연합뉴스

‘날으는 작은새’ 조혜정 프로스포츠 첫 여성 감독

GS칼텍스 배구팀 사령탑에

여자 프로배구 GS칼텍스가 조혜정(57) 한국배구연맹(KOVO) 경기운영위원을 새 감독으로 맞이했다.
 GS칼텍스는 “이성희 감독이 플레이오프를 마치고 사퇴 의사를 밝혀 이를 받아들이고 조혜정 감독을 차기 사령탑으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계약기간은 3년으로, 코칭스태프도 곧 인선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조혜정 감독은 한국 프로배구 사상 첫 여자 감독이 됐다.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구기종목 사상 첫 동메달을 따낸 여자 대표팀에서 중심 역할을 했던 조 감독은 현대건설에서 코치를 맡고 이탈리아 2부리그에서 코치 겸 선수로 활약한 바 있지만, 아직 감독 경험은 없다.
 GS칼텍스는 “조혜정 감독은 평소 선수와 팬 모두가 즐거운 신바람 배구와 흥겨운 배구장 만들기를 강조해 왔다”면서 “프로배구 최초의 여성 감독으로서 참신함과 특유의 섬세함으로 지도력을 발휘, 팀 체질을 바꾸어 최강 전력으로 다음 시즌 우승에 도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조 감독은 “처음이라는 부담감 때문에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다”면서 “구단과 내가 원하는 배구가 일치하기엔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사명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 감독은 “여성인 만큼 더 세밀하게 지도할 수 있다. 선수들과 더 친밀하게 소통하고, 모자간척처럼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다”면서 “자나치게 가까워져 단점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조 감독은 또 침체된 여자 프로배구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싶다는 야심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흥겹고, 보고 싶고, 나아가 직접 하고 싶은 배구를 해야 한다”고 철학을 밝히며 ‘발이 먼저 움직이는 빠른 배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감독은 “2년 동안 지켜보면서 선수들이 기술적으로 부족한 것이 체계적인 부담 탓이라는 것을 알았다”면서 “선수층은 얇은데 경기를 많이 하다 보니 체력이 떨어지고 기술을 연마할 시간은 부족했던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 기본기를 더 닦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피겨퀸’ 김연아 15일 올림픽공원 특별아이스링크에서 ‘KCC 스웨덴 페스타 온 아이스 2010’ 미디어 리허설을 하고 있다. 김연아의 국내 아이스쇼는 지난해 8월에 이어 8개월 만이다.
 /연합뉴스